

과외활동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과외활동은 학생 개인의 개성을 크게 신장시키고 자립심, 자발성, 사회성을 배양하며 풍요로운 인간형성에 도움을 준다. 본 대학에서는 과외활동을 이와 같은 훈련의 장으로서 그리고 대학전인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지원하고 있다.

과외교육활동에는 전체 학생의 36%에 해당하는 약 7,00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잘 정비된 환경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여 자발성과 사회성을 구비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본 대학의 과외교육활동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대학 전체의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학우회’라 불리는 이 조직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20명으로 구성되는 총무위원회, 그리고 체육·학술문화부회

상임간사와 상호 협력하여 제활동의 기획·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공인단체로는 체육부회가 43개 부와 1개 동호회, 학술문화부회는 34개 부, 그리고 애호회 78개 단체가 있다. 또한 상학부 제2부에는 19개 부 1개 동호회, 애호회 2개 단체가 있다.

이 단체들은 각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술문화부회에서는 독특한 연구활동으로 개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으로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체육부회는 전국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올림픽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출전하여 스포츠계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